

표·지·이·야·기



학습참고서의 변신은 무죄?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잠도 6시간은 충분히 잤고요.”

해마다 대입 수능이 끝나면 전국 수석을 차지한 학생들이 TV 등 매체에 등장해 반복하는 말이다. 해마다 전국 수석들이 ‘교과서’를 밀친 삼아 공부한다면 교과서 열풍이 불 것도 하건만, 언젠고 언론매체에서 ‘교과서 열풍’이라는 헤드라인을 접해 보지 못했다. 오히려 반대로 해가 가면 갈수록 새로운 학습참고서가 우후죽순처럼 시장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명멸(明滅)을 거듭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 이제 6시간 자면서 교과서로 공부해서 전국 수석했다는 그런 인터뷰를 굳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6시간 잠을 자면서 교과서를 공부하면, ‘내년’도 기약하기 힘들다는 것쯤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시까지로 제한하겠다는 학원 심야수업을 소리 소문 없이 1시간 더 연장되어 11시까지로 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어정쩡한 행정은 그렇지 않아도 수면시간을 담보할 수 없는 학생들의 마음에 생체기를 내고야 말았다.

디지털 교과서도 그렇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과감하게 추진하는 듯 보이지만 전국 학교에 보급할 경우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다. 그만큼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미궁과도 같은 처지에 있다.

교과서만으로 공부하던 시대에서 디지털 교과서로의 변천까지 학습참고서의 부침은, 학생 시절만 고생하면 끝인 우리네 정서상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출판저널>이 4월 표지 이야기로 ‘학습참고서의 변천’을 담은 것은 이 때문이다. 교과서로만 공부해도 대학 가는 시절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변화무쌍했던 변신을 반면교사(反面教師) 삼으면 실마리 정도는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쉽지 않은 바람을 가져본다. ㉘